

예수품안교회
창립예배말씀

‘그때’의 귀향과 ‘오늘’의 귀향

(누가복음 15, 11-24)

2018. 1. 6

강 치 원 목사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억압과 탄압을 받던 시기에 역설적이게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뜻을 모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자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었으며, 강원도의 어머니 교회라 불릴 정도로 나름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왜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 한 것일까요? 더욱이 그들은 다니던 교회에서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기득권과 존경받을 수 있는 명예를 내려놓고 교회개혁이라는 광야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들은 규모가 있는 교회나, 유명세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세인들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규모나, 유명세나, 목회자의 인지도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알려졌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존재 기반을 상실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교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투사하여 만든 종교모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잃어가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자 했고, 무너져가는 교회의 존재기반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들었던 교회를 나와 광야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흔적이 바로 강원도에서 장로교의 모(母)교회라 불리는 춘천동부교회입니다.

저는 춘천동부교회를 창립했던 그들의 길을 귀향으로 간주합니다. 교회를 나온 자, 곧 교회를 떠난 자들의 길을 귀향이라 칭하는 것은 일견 모순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귀향’이라는 말 앞에 한 단어를 첨가하여 ‘본질로의 귀향’이라 부르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떠남은 오히려 귀향이었습니다. 그들의 교회 떠남은 오히려 교회로의 귀향이었습니다. 그들의 떠남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로부터의 떠남이요, 그들의 귀향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로의 귀향이었습니다.

창립예배 설교 부탁을 받을 당시 제가 인도하고 있는 성경공부 모임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를 막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과 12월 29일에 두 번에 걸쳐 오늘의 설교본문인 ‘아들을 잃음과 다시 얻음에 관한 비유’를 공부하였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는 교회 창립예배의 설교본문이 되기에는 너무도 생동맞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교회창립예배에 잘 맞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본문의 문맥적인 내용과 의미가 아니라, 몇 가지 단어를 설명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창립예배와 어울리지 않는 딱딱한 강해설교이기에 죄송한 마음과 함께 여러분의 경청을 구합니다. 그냥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설교원고를 나누어드린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상속분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분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우시아’(οὐσία)입니다. 헬라철학과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 앞에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헬라문화와 철학에서 ‘본질’, ‘존재’라는 의미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후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우시아’, 즉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공의회를 전후하여 ‘우시아’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이 말을 인식하다 싶을 정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두 번 나오는데, 오늘 설교본문에만 두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말에 나옵니다.

‘재산’이라는 말로 번역된 ‘우시아’는 ‘be’동사에 해당하는 ‘에이미’(εἰμι)에서 파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유보다는 존재적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어떻게 ‘재산’이라는 소유적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재산’이라는 말은 생계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물로서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토지는 소유자의 존재, 또는 본질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토지라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존재가 평가받는 시대에는 소유와 존재를 같은 범주에서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시아’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토지와 같은 재산의 의미를, 다른 한 편으로는 존재나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아버지의 본질을 대변하는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부에 보면, 그것은 ‘살림’입니다. 여기서 ‘살림’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βίος)입니다. 이 말은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수단, 곧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화폐 등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1, 4절은 이런 의미의 ‘비오스’를 ‘생활비’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시아’가 토지와 같이 부동산적 의미의 재산을 의미한다면, ‘비오스’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셀 수도 있는 동산적 의미의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오스’는 ‘우시아’에서 나왔으며, 이것을 가꾸고 풍성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아버지의 본질을 대변하는 ‘우시아’를 요구한 둘째 아들이 받은 것은 ‘우시아’ 자체가 아니라, ‘우시아’의 또 다른 존재방식이라 할 수 있는 모양이 있고, 형체가 있는 ‘비오스’입니다.

이제 ‘비오스’를 손에 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비오스’를 가지

고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난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받은 ‘재산을 낭비한 것입니다’(13절). 여기서 ‘낭비하다’(디아스코르피조, διασκορπίζω)는 말의 기본 뜻은 ‘여기저기 흩어 뿌리다’, ‘완전히 흩어 뿌리다’입니다. 그럼 그가 흩어 뿌려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청했던 그 ‘우시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우시아’는 토지라는 의미의 재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에 있던 둘째 아들의 ‘우시아’는 토지와 연결시킬 수 없기에 그의 ‘존재’, 그의 ‘본질’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였다’는 말은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우시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손 안에 있는 돈이 자신의 존재를 대변해주는 것으로 간주했는지도 모릅니다. ‘비오스’와 ‘우시아’를 동일시하며 밖으로 보이는 ‘비오스’의 풍부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비오스’의 원래 목적인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본질’을 가꾸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결과는 ‘비오스’만 다 탕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비극을 그는 자신의 죄로 인식합니다(18절).

그런데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집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는 그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로가 그에게 붙어삽니다(15절). 여기서 ‘붙어살다’(콜라오, κολλάω)는 말은 누가의 언어사용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더러는 비웃고, 더러는 더 듣고자 합니다. 이 더 듣고자 한 자들과 관련하여 누가는 ‘붙어살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사도행전 17, 24)

새번역은 ‘가까이하다’는 말을 ‘바울의 편에 가담하다’로 번역합니다. 이렇듯 ‘붙어살다’는 말은 ‘~를 가까이하다’, ‘~의 신봉자가 되다’는 의미를 같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도록 습관화되어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보이는 것만 붙잡고,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질과 존재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합한 자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자였습니다. 아니, 채워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맡긴 자는 그의 실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존재의 위기에 처한 둘째 아들은 자신의 길의 방향이 잘못 되었

음을 깨닫습니다. ‘먼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로 향하는 길은 자신의 실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누가복음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정말 특이한 표현입니다. 17절 전반부에 나오는 헬라어 문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에게로 갔다.’(Εἰς ἑαυτὸν ἐλθὼν)

저는 이 말에 전율을 느끼며 한동안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로 가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개역개정은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로 번역하고, 새번역은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내적 실존을 성찰하는 의미로 읽고자 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자신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성찰하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17절). 여기서 ‘죽다’는 말은 이미 본 비유 앞에 나오는 ‘잃은 양을 되찾음에 관한 비유’와 ‘잃은 동전을 되찾음에 관한 비유’에서 네 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아폴뤼미, ἀπολλύμι). 그곳에서는 모두 ‘잃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죽다’는 의미는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우시아를) 잃어버리다’,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다’, ‘(자신을) 잃어버리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남다른 점은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성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은 밖으로는 스스로 만족하는 쾌락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안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무언가 활력적이고 살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자신되게 하는 본질이 죽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을 잃어버린 존재가 자신을 되찾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향입니다.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존재의 근원, 곧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니 아버지 자체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형성하고, 자신의 존재가 나온 아버지입니다. 자신 안으로 들어가 내적 성찰을 통해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직시한 둘째 아들은 자신을 자신되게 하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을 그는 18-19절에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 자신 안으로 가는 자는 존재의 근원인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을 알지 못

해 아버지의 집에서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자’에게로 갔던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아버지를 떠난 결과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을 죄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유산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던 ‘아버지의 아들’에서 ‘품꾼의 하나’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이르게 된 자기 진단이요,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가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직시한 둘째 아들은 일어나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20절). 우시아를 잃어버린 아들이 일어나 자신의 우시아의 근원인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의 이 아버지에게로의 감이 바로 본질로의 귀향입니다.

이제 설교의 초두에 소개하였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이미 유명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한 교회를 떠난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인 우시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를 보조해주는 비오스는 잘 보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만질 수 있고, 셀 수 있는 이 비오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누가 처음부터 비오스에 더 몰두하겠습니까? 분명 우시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시아를 더 뿌리 깊게 내리기 위해서 비오스를 붙잡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이 본질을 가꾸고 풍성하게 해주는 비오스인지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사람의 속성상 곧 비오스를 우시아로 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시아를 가꾸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비오스를 위하는 일에만 매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시아를 위한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신념, 이런 확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면 합리화될수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죽게 됩니다.

일제의 교회 탄압의 강도가 심해지던 1930년대 말, 교회를 떠나 교회를 세운 ‘그때’의 사람들은 우시아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떠남은 교회를 포기하는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떠남이었습니다. 우시아를 회복하는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떠남은 아버지의 집에서 나가는 떠남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떠남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떠남은 역설적이게도 ‘귀향’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의 귀향, 아버지께로의 귀향은 비오스가 판을 치는 교회 문화에 대한 저항이요, 우시아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창립예배를 드리는 예수품안교회는 어떤 교회를 떠나, 어떤 교회로 귀향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떠남은 아버지 집으로부터의 떠남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의 귀향입니까? 여러분의 떠남은 우시아에서 비오스로의 떠남입니까, 아니면 비오스에서 우시아로의 떠남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떠남은 광야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물 밥을 먹어야 하는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의 떠남은 젓

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의 귀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잡기 위해 뒤쫓아 오는 바로의 군대만이 여러분의 광야 길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익숙해 있던 밥과 고기를 먹지 못함에서 오는 허기와 물을 마시지 못함에서 오는 목마름도 광야 길로 나선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며, 다시금 돌아가도록 유혹하곤 합니다. 온갖 비오스에 길들어 있는 관행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오는 금단 현상 또한 여러분이 극복해야 하는 광야입니다. 더욱 더 건너기 힘든 광야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본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이 광야야말로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예수품안교회를 그저 그런 교회로 전략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여러분의 떠남을 아버지에게로의 귀향이 아니라, 또 다른 비오스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내 안으로 들어가 이런저런 비오스에 매몰되어 우시아를 잃어가는 나를 직시하게 해주는 한적한 곳입니다. 하나님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분을 응시하게 해주는 새벽 미명입니다. 비오스가 판을 치는 세상의 그럴듯한 소리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존재의 심원(深原)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원시적 고요입니다. 되어야 할 나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한 존재로 나를 가꿀 수 있도록 양분을 제공해주는 아침 이슬입니다. 하여 이 광야의 십자가를 즐겁고 기쁘게 메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여러분에게는 이 광야 삶을 잘 이겨나가게 해줄 버팀목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는 존재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양을 한 비오스들이 하나님을 추방하고, 그 자리를 점령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오스를 본질로 간주하는 교회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비오스 신앙을 팔고 있고, 그 결과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라, 비오스를 따르는 신자들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추방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떠나 당신 자신에게로 귀향하기를 원하는 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 길에 길동무로, 버팀목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광야 길에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그리워하고, 그 본질을 찾아 떠나는 귀향길에 여기저기서 동참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서로 공명하여, 말 그대로 함께 우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씨줄과 날줄로 이어져 광야 길을 함께 걷는 ‘나와 너’입니다. 본질인 ‘우시아’가 아니라, 본질의 주변 것인 ‘비오스’에 매몰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치환시키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동행하는 한 지체입니다. 이들과 함께 떠나는 귀향, 얼마나 설레고 아름다운 귀향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신앙의 이름으로 ‘나와 너’를 이룬 공동체가 얼마나 자주 맹목적인 집단이성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신으로 추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적 성찰을 개인의 차원으로만 윤패시키고 공동체적인 성찰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비오스’를 ‘우시아’로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공동체적인 성찰이 없는 교회는 자기 최면에 빠져 모든 교회의 관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키는 비이성적 집단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생각하는 이성에 폭력을 가해도, 순종이란 이름으로 집단적인 맹종을 강요해도 그저 ‘아멘’만 외치는 종교적인 노예집단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지만 실은 교회가 아닌, 신자들을 ‘그것’으로 전락시키는 자기 집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와 너’를 이루는 교회는 공동체적인 자기 성찰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한 해 한 해 쌓이는 교회의 전통을 ‘우시아’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상대화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란 ‘우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신앙을 풍성하게 해주는 ‘비오스’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중에 ‘안식일’ 자리에 우리는 ‘교회’를 대치시키며, 교회를 절대화시키려는 모든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 착취해도 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비오스’입니다.

이것은 예수품안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품안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품안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품안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게 된다면, 이 교회는 또 다시 본질은 내팽개치고 비오스의 장단에 춤을 추는 우상숭배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본질로 귀향하는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존재를 상실한 허수아비들만 드나드는 종교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창립예배를 드리는 예수품안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본질로의 귀향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며, 사람을 사람되게 하겠다는 신앙적인 고백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요? ‘비오스’가 아니라 ‘우시아’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떠남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교회문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고백, 이 저항이 아름다운 귀향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그러나 이 눈물은 여러분이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인 성찰을 진지하게 한다면, 끝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로 이런 희망을 노래하는 축제의 시간이요,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향연의 장입니다.